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796천 km ²	G D P	2,365억 달러 (2013년도)
인구	1.93억 명 (2013년도)	1 인 당 GDP	1,295 달러 (2013년도)
정치체제	연방의회제	통화단위	Pakistani Rupee(PR)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101.50 (2013년도)

- 파키스탄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북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아라비아 해와 인접하고 있음.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주로 힌두교)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동 파키스탄과 서 파키스탄이 연합하여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수립됨. 이후, 1971년 동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고 파키스탄 연방을 탈퇴하여 현재의 영토로 남게 됨.
- 금, 은, 석탄, 천연가스, 구리,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인구 규모도 세계 6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음.
- 인도와의 영토분쟁, 이슬람 종파 간 내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된 탈레반 무장 세력의 준동으로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e	2014/15 ^f
경제성장률	3.7	4.4	3.6	3.1	3.7
재정수지/GDP	-6.9	-8.4	-7.8	-5.3	-4.2
소비자물가상승률	13.7	11.0	7.4	8.8	9.0

자료: IMF.

□ EU의 관세혜택 부여 등으로 2014/15년 경제성장률 3.7% 기록 전망

- 열악한 인프라와 사회 불안,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주변국에 비해 낮은 편임. 2012/13년에는 전력수급 불안과 치안악화에 따른 민간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3.6%로 둔화됨.
- 2013/14년에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보조금 지출 등의 감축과 치안악화 지속으로 경제성장률이 3.1%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2014/15년에는 파키스탄 섬유제품에 대한 EU의 관세혜택 부여에 따른 수출 증가로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판매세 및 전력요금 상승 등으로 2014/15년 물가상승률 9.0% 기록 전망

-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07/08년부터 2011/12년까지 두 자리 수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됨.
- 하지만, 2012/13년에는 식량수급 개선에 따른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4%로 낮아짐.
- 2013/14년에는 전력 보조금의 단계적 삭감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8.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15년에는 판매세 상승, 전력요금 상승 등으로 9.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세수 제도 개편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 축소 전망**

- 파키스탄은 취약한 세수 기반과 비효율적인 세원 관리, 인도와의 분쟁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각종 보조금 지급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임.
- 2012/13년에는 세외수입 증가, 연합국지원기금(CSF)* 수취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전년대비 낮아진 7.8%를 기록했으며, 2013/14년에는 IMF 구제금융 제공 조건인 세수 제도 개편,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따른 면허 대금 수취 등으로 동 비율이 5.3%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 연합국지원기금(CSF):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참여 동맹국에 제공하는 지원기금
- 2014/15년에는 과세 대상 확대, 전력보조금 삭감 등을 통해 동 비율이 4.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 발전을 저해**

- 조세수입이 부족하며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인프라 복구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어려움.
- 설치 발전용량 중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수력 등에 비해 높은 발전단가와 만성적인 가스부족 현상 등으로 발전소 가동률이 낮은 편임. 또한 비효율적 전력 배분, 송전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전력 손실률이 17%(2011년 기준)에 달함.
 - 세계경제포럼의 2013-2014 글로벌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에서 인프라 부분은 조사대상 148개국 중 119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전기공급 부문(135위)의 순위가 낮음.

□ **인적자본의 낮은 교육 수준으로 고급인력 부족**

- 16세 이하 어린이들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으나 높은 빈곤률로 취학률이 낮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여성에 대한 교육차별이 심하여 고급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세계경제포럼의 2013-2014 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은 148개국 중 초등 취학률(137위), 중등 취학률(136위) 부문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함.
- 파키스탄 국민들의 문자 해독률은 58%인데, 남성의 경우 69%이나 여성의 경우 45%에 불과함.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저임 노동력

- 세계 7위 규모인 약 2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2.0%(2013년 기준)로 높아 임금 수준이 낮은 편임.
 - 일본 Jetro에 따르면,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의 일반 생산직 노동자 임금은 월평균 173달러로 중국(광저우) 395달러, 인도(뉴델리) 276달러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자원개발 산업의 성장 가능성

- 파키스탄은 천연가스, 석탄, 석회석, 철광석 등 52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의 75%에서 지질학적으로 광물자원 부존 가능성이 높음.
- 석탄, 석고, 돌로마이트 등은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프라 및 기술 부족, 비효율적 행정 처리 등으로 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음.

다. 정책성과

□ 2013/14년 재정 건전성 강화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 확보

- 2013/14년 예산안에 반영한 전력 보조금 삭감, 일반판매세 및 소득세 인상 등 재정건전성 강화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IMF 구제금융 승인을 받아 외화 유동성을 확보함.
 - 2008년말 IMF로부터 113억 달러의 구제금융 승인을 받았으며 80억 달러를 지원받음. 하지만 조세징수시스템 등의 개혁에 실패하여 구제금융 지원이 2011/12년에 중단되었고 43억 달러의 미상환액이 남음.

- 2013년 9월 IMF는 3년 기한 67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승인했으며, 지원액 대부분을 2008년 기지원 금액 중 미상환액인 43억 달러 상환에 사용할 예정임.

□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이거나 치안 악화 등으로 투자 유입액은 감소 추세

- 조세감면, 과실송금 보장, 특별자유무역지대 설치,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등의 투자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치안악화, 정정불안, 인프라 미비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07년 이후 감소 추세임.
- 2007/08년 54.1억 달러에 이르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12년에는 8.2억 달러를 기록함.
- 다만, 2012/13년에는 석유 및 가스 분야 투자 호조 유지, 금융분야 투자 증가 등으로 14.5억 달러를 기록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e	2014/15 ^f
경 상 수 지	-2,234	-2,342	-4,170	-5,210	-7,131
경 상 수 지 / G D P	-1.0	-1.0	-1.8	-2.1	-2.6
상 품 수 지	-12,544	-15,597	-15,815	-17,739	-20,716
수 출	26,308	24,791	25,180	27,706	29,815
수 입	38,852	40,385	40,995	45,445	50,531
외 환 보 유 액	14,784	10,799	6,008	9,308	13,326
총 외 채 잔 액	67,323	65,478	59,779	66,110	72,927
총 외 채 잔 액 / G D P	31.8	30.4	26.5	26.3	29.2
D S R	9.3	10.0	13.4	15.4	17.9

자료: IMF, EIU, OECD.

□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2014/15년 상품수지 적자 확대 전망

- 해외근로자의 송금 및 연합국지원기금 등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섬유, 쌀, 가축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원자재, 기계류, 소비재 등을 수입함에 따라 만성화된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매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186억 달러(2012/13년) → 201억 달러(2013/14년) → 219억 달러(2014/15년)

- 2012/13년에는 루피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158억 달러를 기록함. 2013/14년에는 섬유 제품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섬유 및 전력 산업 관련 원자재 등의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17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2014/15년에는 대 EU 수출 품목 관세혜택 부여로 인한 수출 확대에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세가 유지되어 상품수지 적자가 207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IMF의 지원으로 외환보유액 증가가 예상되나 총외채잔액은 증가 전망

- 2011/12년 IMF 자금 지원 중단으로 외환보유액이 108억 달러(2011/12년)에서 60억 달러(2012/13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14년 IMF 구제금융 지원으로 2014/15년 외환보유액은 133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08년부터 기집행된 IMF 지원액 상환과 수출 증가율 둔화 지속 등으로 총수출 대비 외채원리금 상환액 비중(D.S.R.)이 2011/12년 10.0%에서 2014/15년 17.9%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파키스탄은 쌍둥이 적자 만성화로 외채에 의존하고 있어 2014/15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29.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동향

□ 전국 이래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와 안정적 정국운영 토대 마련

- 2013년 5월 총선에서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의 파키스탄무슬림리그(Pakistan Muslim League: PML)가 하원의 과반 의석(342석 중 190석)을 확보하며 1970년 총선이 실시된 이래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2014년 8월부터 제3당인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akistan Tehreek-e-Insaaf, 34석)이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나 군부 지원 부재, 참가인원 저조로 현 정권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내의 반 쿠데타 정서와 IMF 구제금융 지원 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영향력 확대로 군부 쿠데타 재발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임.

2. 사회 동향

□ 파키스탄탈레반(TTP)과의 평화협상 결렬로 테러 발생

-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무장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TPP 세력은 극단적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며 반정부 테러를 감행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음.
- 샤리프 총리는 2014년 2월 탈레반 조직과 평화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 성과가 없었음. 이후에 TPP는 카라치 지나(Jinnah) 국제공항에 대규모 테러(2014년 6월)를 감행하였으며 파키스탄 정부도 지상군 투입 등을 통한 TPP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음.

□ 이슬람 다수종파인 수니파와 소수 종파 간 갈등 지속

- 이슬람 다수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등 소수 종파간의 종교 갈등이 지속 되면서 수니파가 소수인 시아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테러를 가하고 있음.
- 2013년 2월 수니파가 시아파를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감행하여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종파간 갈등으로 인한 차량 폭탄 테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카슈미르 지역 분쟁 등으로 인도와의 관계 개선은 불투명

- 파키스탄과 인도는 1947년 분리 이후 카슈미르 지역 영토 분쟁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2014년 7월에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어 양국 관계 회복은 요원해보임.
- 다만, 인도 모디 신임 총리 취임식(2014년 5월)에 샤리프 총리가 파키스탄 총리로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등 양국은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 중임.

□ 2014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도 전략적 협력 관계 유지 예상

- 미국이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 201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함에 따라 파키스탄에 대한 연합국지원기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미군 철수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적 관리와 파키스탄의 탈레반 축출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양국의 협력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는 경제 분야 등 다방면에서 협력 강화 예상

- 중국은 인도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친 파키스탄 외교 정책을 펴고 있음. 리커창 총리는 2013년 5월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으며 샤리프 신임 총리 역시 2013년 7월 중국을 방문함.
- 최근 양국의 협력 강화에 따라 중국의 대 파키스탄 외국인직접투자액이 2012/13년 1.1억 달러(외국인직접투자액의 4.1%, 7위)에서 2013/14년 7.4억 달러(28.2%, 1위)로 급격히 증가함.
 - 중국은 과다르항 운영권 인수, 동 항구과 중국을 잇는 철도 및 송유관 건설, 원전 건설 지원 등을 통해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취약한 채무상환 능력으로 잦은 채무재조정 경험

- 외채 누적으로 파키스탄의 채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파리클럽은 6차례 (1972년, 1974년, 1981년, 1999년, 2001년 1월 및 12월)에 걸쳐 채무를 재조정한 바 있음.
- 당행도 EDCF 사업인 ‘파키스탄 산업설비 대여산업’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였으며 현재 원리금 회수 중임 .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14. 6)	7등급 (2013. 6)
S&P	B- (2009. 8)	CCC+ (2008. 12)
Moody's	Caa1 (2014. 7)	Caa1 (2012. 7)

* Fitch는 동국 미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 치안 악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심화,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2009년 4월 OECD가 파키스탄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7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등급을 유지함.
- 2009년 8월 S&P는 IMF의 차관 지원 결정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후 등급 변동이 없음.
- 반면, 무디스는 2012년 7월 경상수지 적자 및 재정적자 증가, 외환보유고 감소, 지속적인 루피화 가치 하락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Caa1(투자 부적격등급)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이후 동일한 등급을 유지함.

□ 주요 ECA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제한적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83년 11월 7일 (북한과는 1972년 11월 9일 수교)
- 주요협정 : 무역협정(1968년), 해운협정(1984년),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협정(1986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87년), 투자보장협정(1990년), 항공협정(1996년), 무상원조협정(2012)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파키스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6	주요 품목
수출	847	819	377	합성수지, 철강관, 농약 및 의약품
수입	776	522	218	석유제품, 면직물, 천연섬유사
교역규모	1,623	1,341	595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3년 파키스탄과의 수출과 수입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면서 교역규모는 13억 달러를 기록함.
 - 특히, 한국의 석유, 동 제품 수입액이 전년 대비 각각 54.7%, 33.2% 감소함.
- 우리기업의 대 파키스탄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3월 말 기준 총 41건, 1억 2,139만 달러(누계기준)를 기록함.
 - 제조업에 대한 투자(7,986만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V. 종합 의견

- 치안 문제와 취약한 인프라 등에 따른 투자 위축,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주변국 대비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4/15년에는 섬유제품에 대한 EU의 관세혜택 적용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취약한 세수기반, 광범위한 탈세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만성화되었음. 향후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에 따라 세수 제도를 개편하고 전력 보조금 등을 삭감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14/15년 4.2%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대규모 경상이전수지 흑자 및 EU 앞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가 예상됨.
- 2013년 5월 총선에서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파키스탄 무슬림리그(PML)가 다수의 하원 의석을 확보하여 현 정권의 안정적 정국 운영의 토대가 마련됨. 다만, 이슬람 종파 간 갈등 및 파키스탄탈레반의 테러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이 존재함.
- 만성적 쌍둥이 적자로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이 6차례 진행되는 등 외채 상환태도가 취약함. 2011/12년 IMF 구제금융 지원 중단으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3/14년 IMF 구제금융 지원 신규 승인과 재정적자 감축 노력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

조사역 유재준(☎02-6225-5705)

E-mail : jjyu@koreaexim.go.kr